

육계 초기사료의 급여방법과 효과



유 재 석 대표
토금토금
chck628@yahoo.co.kr

오늘날 육용종계의 선 발방향은 보다 짧은 일령에 빠른 성장을 하도록 유도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다보니 닭고기의 맛과 빠른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육종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육계는 닭고기 자체의 맛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닭고기를 가공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되어 양념(소스)과 함께 접목되고 있고, 닭고기 자체의 맛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토종닭이나 칠면조, 오리 등 다른 가금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육계는 오직 빠른 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사육일령의 놀라운 단축과 일일 증체량의 증가는 사료의 품질개선이 첫 번째 주요 원인이 되었고, 특히 병아리

육추관리가 더욱 중요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초기사료는 이러한 육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추 초기에 병아리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는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육추 초기관리에서 초기사료(입 붙이기 사료, 혹은 초이사료, 이하 초기사료라고 함)를 어떻게 급여해야 모든 병아리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초기사료를 섭취해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기사료의 신속한 급여효과

초기사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화장에서 발생된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초기사료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초기사료를 빨리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빨리 먹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인 초기사료를 급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급여시간

이 늦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병아리가 초기성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육추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병아리의 장과 소화기관의 발달이다. 이 기관들이 스스로 발달하지 못할 경우 면역체계 발달에 지장을 줘 질병발생이 쉽고 영양분을 소화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증아리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증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병아리 때 소화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한 병아리들은 장 발달이 스스로 되지 않아 결국 증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필자는 경험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병아리의 경우 장과 소화

기관이 스스로 발달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약으로 사양관리를 대체하려고 해서 생긴 부작용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계군에 문제가 없다면 입추당일에만 소화제를 주는 것을 필자는 권장한다.

초기사료를 신속하게 급여하면 앞에서 강조된 병아리의 각종 장기와 소화기관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육추기간 이후에 성장이 빨라지게 된다. 특히 첫 초기사료 급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모체로부터 받은 난황(지질 50%, 단백질 50%) 흡수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에 와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난황은 병아리가 발생된 이후 2~3일간 그 자체만으로도 영양을 공급받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난황이 완전히 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어머니의 모유를 가장 빨리 먹은 아이의 건강과 면역력이 좋다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쉽다.

그 난황소화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요소가 초기사료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 하는 것이다. 부화즉시의 병아리는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난황에서 공급받지만 부화가 끝나면 빠른 속도로 장내에 존재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소를 공급받는 이른바 과도기에 접어든다. 장내에 사료가 존재하면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하며 장내로 난황의 이동을 자극하게 된다.

이런 과도기는 부화 후 48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사료를 빨리 먹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욱 자극적으로 빨리 이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체중과 가슴육을 5~10%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아리가 입추되었을 때 육추방법이 모두 틀린데 물을 먼저 주고 사료를 나중에 주는 농장과 사료를 먼저 주고 물을 나중에 주는 농장, 그리고 물과 사료를 동시에 주는 농장을 비교하면 사료를 나중에 주는 농장의 병아리가 총아리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장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방법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장의 발달에 사료급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사례가 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더라도 초기사료는 병아리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시험한 사례를 몇 가지 보자.

십이지장의 경우 용모 표면적은 처음에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경우 매우 위축되었으나 4일령 이후에는 사료를 급여한 병아리와 비슷해졌다. 그러나 공장의 용모 표면적은 9일이 지났는데도 신속히 사료를 급여한 병아리보다 작았다.

소장 장 점막세포인 장관세포 역시 부화에 후에 사료급여시간에 영향을 받는데 사료를 신속히 급여한 병아리의 세포수와 세포 성장속도는 그렇지 않은 병아리에 비해 매우 빨랐다.

소장의 초기 성장은 사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달이 진행되는데 이때도 갓 부화된 병아리에게 사료공급이 지연되면 소장의 발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이 발달하면서 장관 임파조직이 함께 발달해야 하는데 사료의 급여가 지연되면 장관의 발달이 손상돼 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2. 초기사료 급여방법

육추준비는 농장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계사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간의 경험이 농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병아리 입장에서 보다 빠르게 물과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환경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바닥 깔짚은 안락해야 한다.

약은 무엇을, 어떻게 줘야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이다.

앞에서 초기 사료급여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

조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빨리 병아리가 사료를 먹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육추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농장에서 보조 사료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그 높이가 대부분 높다. 심지어 일부 농장에서는 지대사료를 한 포씩 계사 육추실에 띄엄띄엄 나눠놓고 사료포대 위를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병아리가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병아리한테 ‘와서 먹어라’가 아니고 쉽게 먹도록 해줘야 한다. 초기사료를 아무리 좋은 것을 쓴다고 해도 병아리가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병아리가 가장 신속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필자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육추실 크기는 평당 120~150수를 권장한다 (10,000수 육추실은 70평 내외).

병아리가 들어오기 전에 급이기에도 사료를 돌려준다. 건강한 병아리들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급이기에 사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급이기 밑에도 롤(roll)로 된 종이를 깔아주고 사료를 뿌려준다.

급수기 밑에도 종이를 깔고 사료를 바닥에 뿌려준다. 사료를 먹고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조 물통(꼬마물통이나 난좌 등)이 있으면 보조 물통 밑에도 종이를 깔고 사료를 뿌려준다. 물을 먹고 바로 사료를 먹도록 유도한다.

보조 사료통을 4~5일간 놓아준다. 이 때 사료량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하루에 한번

정도 줄 양으로 준다. 종이 위에 주는 사료는 하루에 5~6회 준다.



요즘 초기사료는 매우 품질이 좋아서 개서(연이사료) 줄 필요는 없지만 초산병아리나 병아리가 약한 계군 혹은 가슴장치가 부족하거나 물통숫자가 부족한 농장에서는 사료를 물에 개서 주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아리가 1m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사료가 있도록 골고루 뿌려줘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위와 같이 바닥에 종이를 깔고 사료를 뿌려주고 육추관리를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크레임이 70% 정도 줄어들었다. 균일도 역시 매우 향상되었다.

종이 깔기가 너무 어려우면 비닐이라도 깔고



줘야 되지만 필자는 권장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종이를 사료포대 잘라서 깔았지만 요즘은 초기사료를 벌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

고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이롤로 해서 제작 되어 있으니 이용하기 바라며 사료회사에서 파지 물을 팔고 있으니 싸게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

맺음말

과거에는 필자도 병아리에게 물을 빨리 먹어야 좋다고 권장했었는데 현재의 육종 방향과 여러 가지 병아리의 생산성 결과로 볼 때 물의 빠른 급수는 단기간에는 체중이 유리하지만 7일령 이후까지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료를 신속하게 급여해야 하는 문제는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관리자는 병아리가 스스로 사료를 찾아서 먹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제부터 육계 육추관리는 병아리를 아주 지능이 낮은 가축으로 재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인맥경영 이렇게!

1. 상사가 되지 말고 스승이 돼라.
2. 직장 동료의 인생에 도움이 돼라.
3. 선배, 후배, 동기들을 백년지기로 대하라.
4. 좋은 인맥을 상사로부터 물려받아라.
5. 과부 심정 알아주는 홀아비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배려하라.
6. 늘 신입 사원처럼 행동하라.
7. 고객, 거래처, 업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8.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